NEWS RELEASE

SBI Remit

각위

2020년 3월 26일 SBI레밋 주식회사

치쿠호은행, SBI 레밋의 국제송금서비스 취급 개시

종합 핀테크 솔루션 기업인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의 자회사로 국제송금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SBI 레밋 주식회사(본사: 도쿄도 미나토구, 대표이사: 안도 노부오, 이하「당사」)는 주식회사 지구호은행(본점: 후쿠오카현 쿠루메시, 이사 행장: 사토 세이이치로, 이하「치쿠호은행」)과 당사가 제공하는 국제송금서비스의 회원소개 업무에 관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업무 제휴의 배경과 목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등을 배경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 년 6 월말 기준 재류외국인 인구는 283 만명(※1)에 달하며, 그 중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약 60%(※2)로,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지역경제의 귀중한 노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후쿠오카현의 외국인 노동자수는(2019 년 10 월말 시점) 전년동기대비 13.5% 증가한 52,530 명(※3),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수는 전년동기대비 16.1% 증가한 8,850 개 사업장으로 전국 평균치인 12.1%(※2)를 상회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재류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송금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미션으로, 미국의 Ripple 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송금 등 새로운 금융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편의성 높은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여 송금 실적을 쌓아왔습니다.

한편, 치쿠호은행은 후쿠오카현 지역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지역밀착형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 내 기업과의 굳건한 신뢰관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지역밀착형 금융」을 추진하는 금 융기관으로서 베트남, 중국, 필리핀 등의 다양한 국가의 기능실습생이 주를 이루는 후쿠오카현 내의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 니즈에 대응함과 동시에 고용기업이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외국인 종업원의 편리성을 확충하는 신규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양 사는 서로의 네트워크와 장점을 상호 활용함으로써 치쿠호은행은 고객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하면서도 외국송금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를 줄일 수 있게되며, 당사는 새로운 판로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본 업무 제휴에 이르렀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고객 니즈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최신 금융기술을 도입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송금 서비스 개발을 통해「새로운 가치 제공」「고객 중심주의 실현」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1) 법무성: 2019 년 6월말 현재 재류외국인 수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4_00083.html

· (※2) 후생노동성:「외국인 고용현황」신고현황 정리(2019년 10월말 현재)

https://www.mhlw.go.jp/stf/newpage_09109.html

(※3) 후생노동성 후쿠오카노동국: 후쿠오카현「외국인 고용현황」신고현황(2019년 10월말 현재)

https://jsite.mhlw.go.jp/fukuoka-roudoukyoku/content/contents/000594327.pdf

<당사 개요>

회사명 : SBI 레밋 주식회사

소재지 : 도쿄도 미나토구 롯폰기 1-6-1

설 립 2010 년 8 월

대표자 : 대표이사 안도 노부오

자본금 : 5,000 만엔 사업내용 : 국제송금사업

URL: https://www.remit.co.jp/

<치쿠호은행 개요>

회사명 : 주식회사 치쿠호은행

소재지 : 후쿠오카현 쿠루메시 스와노마치 2456-1

설 립 : 1952 년 12 월

대표자 : 이사 행장 사토 세이이치로

자본금 : 80 억엔 사업내용 : 은행업

URL: https://www.chikugin.co.jp/

【본 건에 관한 문의】

SBI FinTech Solutions 주식회사 TEL: 02-2038-2791 Email: ir@sbi-finsol.co.jp